희노애락

(막11:20-26)

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 (없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희노애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분을 내는 것,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뿐이 아니죠.
희노애락은 단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 외에도 인간의 감정은 그리워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또 불교에서 말하는 칠정, 희노애락에 애오욕, 사랑의 감정, 증오의 감정, 욕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 등.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는데,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표현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성전에 성전다운 열매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성전을 저주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저주에 따라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산을 옮길만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고, 참 기가 막히게 오해도 많은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불안하십니다.
걱정이 많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인가 안 나오시던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호전되면서 돈이 벌립니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이제 얼굴에 저절로 웃음꽃도 피어납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십일조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교회 충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 하나님을 믿죠.
앙케이트 조사하면 이분은 당연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것이고, 우

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돈이 벌리면 얼굴이 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셨다, 내게 돈을 주셨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굴 믿는 걸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셨습니까?
그러면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 자체가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불안합니까?
좋은 대학의 힘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의 희노애락, 내가 왜 기쁩니까? 돈을 벌어서 기쁩니까?
그러면 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씨가 돈 때문에 기뻐할 때에 박근혜 씨가 총선에서 자기가 이끄는 당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되었다고 기뻐할 때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희 씨가 돈 때문에 기뻐한다면 돈을 믿는 사람이고, 박근혜 씨가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획득했다고 좋아하면 권력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희 씨의 돈 대신, 박근혜 씨의 권력 대신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이유, 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왜 내가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왜 내가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가?
그 감정이 표현될 때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면 바로 그것을 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자식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걸 외워두세요.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은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 말의 크레도라는 단어는 '꼬르' 심장이라는 말과 '도' 준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심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그리스도에게 내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뜻은 '성령에게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희노애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마음을 줘서 마음이 닿게 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닿게 되면 당연히 닿는 대로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상태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노애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바느질을 시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라면 끓이는 법도 배우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치는데 생전 처음으로 냄비라는 걸 만져보다 보니까 끓고 있는 냄비에 손을 갖다 댑니다.
데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지가 수돗물을 틀어서 거기다 손가락을 대고 있더라고요.
찬물에 손가락을 대면 차고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에 손을 대면 뜨겁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안수집사님께서 마음을 사업에 주었습니다, 사업에 닿게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에 닿아있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사업이 잘되니까 사업에 가 닿아있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줘서 마음을 준 대상과 마음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생기는 희노애락을 보면 내 마음이 무엇에 가 닿아있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애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마음이 애인에게 가 닿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도 전혀 마음이 사업에 가 닿지 않고 딴 데에 닿아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돼도 슬프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닿아있지 않으니까 찬물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차다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지 않는 한 뜨거움을 못 느끼는 것처럼, 사업이 잘되건 안 되건 사업에 마음이 닿아있지 않으면 사업 때문에 내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시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슬퍼했던 것이 여호와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을 때 '주여, 내게로 다시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제일 마음에 두렵고 걱정했던 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 자기를 등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돈 믿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사업이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니까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날 때, 기쁘건 슬프건 내가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따져보면 그 이유가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산을 옮길만한 믿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이 닿게 하는 것과 이것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자기 확신으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자기 확신, 내 마음에 확고한 신념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을 자아내느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전과는 다르게 잘될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평탄하게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센스에요, 넌센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하나님 믿음과 산을 옮길만한 이 믿음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향하여 '이 산아, 바다에 빠져라' 그러니까 '설악산아, 동해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심이 뭘까요?
의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디아 크리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라는 말과 '크리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디아'라는 말은 '듀오'에서 나왔어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테'라는 말은 '결정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의심이라는 것은 '디아 크리테', '두 개의 결정이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결정이 없이 하나의 결정만으로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면 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두 개의 결정이 무슨 얘길까요?
산더러 명하여 '대관령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관령을 바다에 빠뜨리는 이 결정이 하나냐 둘이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 내 결정이고 하나님 결정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결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대관령을 바다에 빠뜨리도록 결정한 거냐 이겁니다.
그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따로 있고 내 결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결정이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결정과 너의 결정이 하나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다에 빠지라고 한 그 결정이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했고, 그래서 네가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그게 누구 결정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하신 거냐?
아니면 두 개의 결정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냐?
두 개의 결정이 따로 놀고 있다면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결정이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의 결정일 때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쳐 봤지만 집에 갈 때는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내 안에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 마음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기투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기투합이란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게 의기투합이에요.
뜻 의(意), 기운 기(氣), 뜻과 기운이 맞아 들어가는 게 의기투합입니다.
그러면 의기투합이 어떨 때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슬프고, 하나님만 계시면 기쁘고, 그게 믿음의 상태에요.
그 믿음의 상태에서 마음과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바로 의기투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의기투합, 마음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결정사항, 그 뜻 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기운과 함께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의기투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결정이 내 마음으로 내 결정이 되어서 들어올 때 그 결정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과 의기투합한 상태에서 하나의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 결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의 전제는 내 희노애락의 이유가 하나님일 만큼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닿아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자,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구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치우고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다른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으시지만,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는 것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있었고,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다시 내 뜻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노라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사업장에서 분주하다 보면 사업에 붙고, 자식을 기르다 보면 마음이 자식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안되면 슬프고, 자식이 잘되면 기쁘고, 자식을 믿어버리게 돼요.
마음이 거기 가 닿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가 닿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수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께만 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즐거운 그런 평강의 마음이 됩니다.

이때에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나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들이 하나님께 가 닿아있는 내 마음에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하나의 결정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았을 때 그 결정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각나는데, 내가 꼭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상태에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나갈 때 아버지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조그마한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까요?
자식에게 붙어있는 마음, 내 건강에 붙어있는 마음, 돈에 붙어있는 마음, 접착력이 강렬합니다.
어떻게 떼어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붙어 내 마음의 희노애락을 주장하는 돈에 대해 죽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닿는 그래서 하나님과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희노애락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살펴보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루 종일 우리의 희노애락을 살펴가며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희노애락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있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마음에 쥐고 내 마음이 붙어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